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6호 【주제 제2544중호】 주제 105(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사적 전진하고 있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안고 투쟁하는 조선혁명가들의 굳결없는 공격정신, 영웅적기상은 세계를 정란시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고 정리의 위업이다. 이것은 일찍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철의 논리와 거대한 혁명실력으로 뚜렷이 확증하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라 《사해주의》 과학이념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로자는 비상한 전진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킨 불멸의 혁명적기치, 만세자주의 위대한 사상적기둥이 되었다. 《사회주의의종말》을 떠드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에게 준엄한 철수를 내리고 사회주의위업, 인부자주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은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로적이 거는 거대한 리선실적의 의의가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전진성과 승리의 필연성은 온 세계가 공인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한화제일강국으로 솟구쳐오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존엄과 백성의 권력을 통하여 우리 인민과 근로직업인류는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성과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투쟁과 선군혁명명도로 인부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열렬한 투쟁을 마친후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승리의 신념과 확신을 넘쳐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불타는 열정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므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인부의 리상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주제사상의 기치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기운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위업은 수명의 명도따라 개척되고 전진하는 혁명위업이다. 수명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지도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주의의 승리의 출발은 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술을 제시하고 투쟁을 하나의 정치적목표로 통일하여 혁명투쟁으로 통일하여 조직동원하는 탁월한 수명을 모신 때 사회주의위업은 역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명도사는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신념,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혁명군현명하게 명도하여오신 성스러운 역사로 빛나고 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국주의만들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조선변화》와 《세계봉기》에 대하여 떠들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칙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선대로 전진시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총대는 제국주의반혁명적의 극악한 반공파국합작공을 신선이 지우신 모퉁이였고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혁명적사상공예의 불길은 우리의 사회주의불꽃이 조공도 불켜지지 않고 켜켜이 휘날려 한 원동력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결같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걸어나가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이 땅에서 불멸의 사회주의부르를 일대세우신 정리의 수호자, 집세의 애국자의 영웅적한행이었다.

전대미문의 함료역정속에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위대한 사상적기둥을 마련하신 탁월한 수령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사상에 의하여 창조되고 사회주의의 발전은 사상리론의 과학성, 혁명성, 현실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온갖 원수들과의 지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의 불을 불조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는것이야말로 인부자주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위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사상리론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과학적인 혁명적인 승리의 기치로 빛내어 주기를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투쟁을 펴 오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하여 사람의 지위를 역전에 대한 주체적전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혁신리론을 비롯한 사상리론들이 새롭게 정립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기초로 하는 불멸의 사회주의로 리론적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명도의 나날에 발표하신 불후의 저서들 가운데 《사해주의에 대한 회박은 허용될 수 없다》 《사해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다》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진적의견과 같이 사회주의의 진로와 백성의 전략술을 명시한 불멸의 저작들이 수없이 많다. 사회주의사회의 변모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진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요구,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과 혁명의 필당의 불가피성을 뚜렷이 명시한 위대한 장군님의 저작들은 오늘날의 시대뿐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도 대표할수 있는 만능의 백과사전이 되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시대에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의견과 정력적인 사상리론투쟁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불멸의 의의가 있다.

위대한 사상은 세계를 밝히는 촛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베타이며 역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이다. 인부는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갈 길을 찾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상, 자주의 혁명적실은 지구상의 그 어느곳에서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빛으로, 투쟁의 기대로 나뉘고 있다. 우리

인속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민대의 번영, 인민의 광명한 미래는 수명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사회주의위업행에서 근본문제인 명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것은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최대의 업적이다. 수명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집세위업은 높이 모심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여하신 만물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생기와 활력을 넘쳐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를 이어 수명복을 누리며 승리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펼쳐나갈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업적을 찬양하건대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식 사회주의와 더불어 세세대대 길이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수하고 세련된 명도밑에 최후승리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일떠세우시고 빛내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공을 강력이 강하고 끝없이 형성하여오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혜의강국으로 전진시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같은 신념이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한 역사적사건이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로선과 원칙을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존엄있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고 있다. 만세만대전진에서 위대한 승리의 진풍이 꽃피고 이어지고 이 땅에서 아홉과 여덟이 다르고 오홉과 여덟이 다르지 눈부신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탄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절실한 정지자, 창조와 건설이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선군의 위력으로 영원히 승리를 떨칠것이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명도력과 거창한 혁명실력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강성건설을 위한 만년기쁨을 마련하신 집세의 애국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한결같은 집세인 원지지도강령은 전진적기둥을 높이 17마리나 높이고 167만 4, 610여마리며 솟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개를 헤아리고 있다. 명철, 무정열, 애국열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세계 단위에 떨친 승리의 대의, 영웅의 대대로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인민의 리관, 천혜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진풍이 나아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전세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넘쳐 부와 필승의 신념, 혁명적투쟁에 넘쳐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명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대에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천재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의 지휘적 사상리론과 탁월한 명도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과학적로에 확고히 올려세우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혁명의 영원한 수명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전진시키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숭고한 혁명적의무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존엄과 영예를 온 누리에 펼쳐나갈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의 유일인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화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원자폭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결같은 집세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오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후손, 김정은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전세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수님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는 신념의 동지, 열혈투사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명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천원요새가 되어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떨쳐야 할 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버려야 한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역사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스스로 선택한 리념이다. 사회주의는 인민의의지이며 인민이 있으면 사회주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리념의 표본이며 필승의 상징이다.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신념으로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다. 혁명적신념, 이것은 한번 다진 명세, 한번 선택한 목적, 한번 틀어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물러섬이 없고 드림도 없는 혁명가의 고결한 의지가 깰개이며 지조이다. 배신과 변질, 이것은 시련과 고난앞에서 주저하는 비겁성이요 회유와 유혹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동요성이요 결사의 시각에 의지와 지조를 굽히는 비열성이다.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는 도저히 없는 신념에 시 절절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이 더욱 세차게 분출되게 된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년을 헤쳐며 싸워 승리를 향일혁명정열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한다. 누구나 부당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죽더라도 백번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절절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혁명의 길은 순탄하지 않으며 혁명전진마다에서 건겁한 혁명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할 광되고 준비된 인민들을 무로고 있다. 인민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억척같이 지니고 투쟁해나가는 진복

배기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혁명의 지휘적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와 혁명기구가 높이 울리고 로동민애소리, 사회주의애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만들들은 새 세태 청년들을 파격으로 삼고 그들을 부패라키켜 우리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변질과해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모든 청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철권명령의 한 성원이라는 깊은 영예와 공지를 안고 당당히 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길로마라 폭풍을 넘어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한 그 정신, 그 기적으로 적들의 사상문화적원무책공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무로로써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적전에서 조선혁명가들의 영웅적기상과 창조본태를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은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

전세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의 굳결없는 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기상을 지니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불가결을 모르는 영웅적군인의 비상한 애국적의열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것이다. 군인대단결, 선진적의 거대한 위력으로 북부해북구전에서 전위투쟁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보외하고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총합의 200일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며 중산투쟁, 창조투쟁, 원수중공적의 불굴의 세차게 타만지게 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시로 높고 이룩비 단결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승모를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품는 온갖 장사상, 장구진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이다.

혁명적인 사상공예의 불미함을 더욱 세차게 없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지면 망한다는것이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리념이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본사상의 힘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혁명적수평관과 열렬한 조공에,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의,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조야하는 사상의 정태, 마치의 같은 5대요소를 강화하는데 확연히 집중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형식과 방편으로 사상공요 사업을 심화시키고 인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철저한 옹호자로 훈련시켜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의 만년초석이 있고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할 천만군민이 있기에 주체의 불멸성은 세기의 광풍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릴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며 계속전진해 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372호
주제105(2016)년 10월 21일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임무수행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신덕관광 평원농야공장 봉화화학공장 증기적장 봉화화학공장 생원적장 개원모한상점 염주교려약공장 대관군 대인업동농장 제1작업단 중강군 중앙업동농장 제7작업단 신원약물관 안악군 오국업동농장 제16작업단 배수시혁명사적지관리소 태안방산 공무수리직장 상원세면트린합기연구소 중앙조종실 장광군승배전소	강릉군 장공소학교 인민봉사용구 봉대농장 제4작업단 송도원청년아의극장 세신성 세신실제연구소 성원강지철원사대 상산대대 성원강지관 영광군 흥봉업동농장 제1작업단 함흥시 회상구역 평명소학교 함흥시 흥덕구역 은덕원	리남제야공장 2직장 경성은하리복용장 김주파수농장 농산제2작업단 경흥화학약품공장 경흥군 안길업동농장 제2작업단 영웅애산제1중학교 해신의쿠어학원 대안현면트린합기공장 강원유리직장 남포백화점
---	--	--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은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서거 55년 스위스회고위원회가 10월 16일 바젤에서 결성되었다.

결성식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페르가 선출되었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채택되었다.

올해 12월 17일은 김정일대원수의 서거 55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스위스의 멋들과 주제 사상, 선군 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일대원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 공 돌켜보았다.

김정일대원수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훌륭한 명도사, 위대한 백두명령자이다. 그이께서는 선군혁명명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공지구위성제국 및 발사국, 핵무국으로 전진시키셨다.

또한 김일성주제에서 제시하신 조공통일선군과 방위들을 조공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신 역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채택발표되게 하시었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위대한 업적은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총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대원수의 유후관철을 위한 선군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셨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는 김정일대원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칭송하기 위하여 김정일대원수서거 55년 스위스회고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주제 105(2016)년 10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김정일대원수의 불후의 고전적로라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전하며 회고모임, 업적포토회, 영화감상회 등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할것이다.

김정일대원수서거 55년 나이지리아인민회당 회고위원회가 10월 25일 이부자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위업총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나이지리아인민회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노부나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서거 55년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업적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말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회고모임, 업적포토회, 영화감상회 등 정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장군회고 베넌전국위원회 결성식이 10월 25일 꼬포부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베넌 《김정일장군 회고》전북회, 주제사상연구 베넌전국위원회, 베넌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꼬포부기자대학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베넌 《김정일장군 회고》전북회 위원장 주제사상연구 베넌전국위원회 위원장 예후 꼬포부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서거 55년에 즈음하여 그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활동들을 적극 벌기로 하였다.

김정일대원수회고 베넌사회주의당 위원회가 10월 26일 꼬포부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으로 베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와 부위원장 아그리호조 슈스메이 작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명도사 김정은동지의 서거 55년에 즈음하여 그의 신념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